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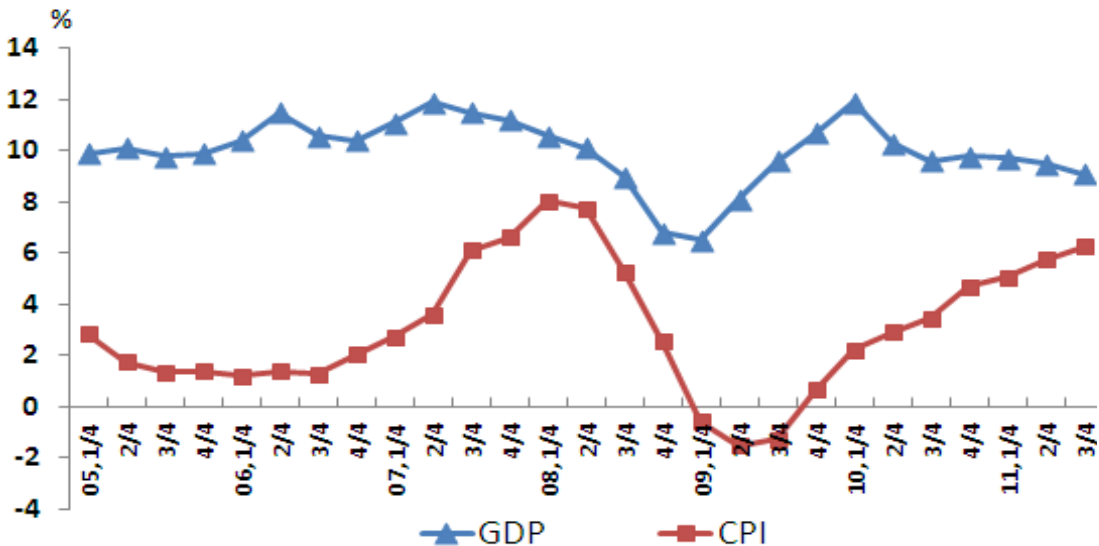


# 3/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과 긴축정책 완화 가능성

왕양비 연구원

-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/4분기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은 9.1%로 9%대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, 각 경제전망기관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임.
- 올 3/4분기 중국경제가 9.1% 성장하면서 9분기 연속 9%대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, 1/4분기 9.7%, 2/4분기 9.5%에 이어 최근 2년래 자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.
- 유럽 재정위기, 글로벌 금융위기, 중국 내 통화 긴축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중국이 달성한 금번 3/4분기 성장률의 경우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.2%나 9.3%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.
- 예상보다 빠른 경제성장률 둔화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선전과 상하이 증시가 동 수치 발표 당일인 10월 18일에 각각 2.7%, 2.4% 하락함.

〈그림 1〉 중국의 경제성장률(GDP)과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 추이(2005년 1/4분기~2011년 3/4분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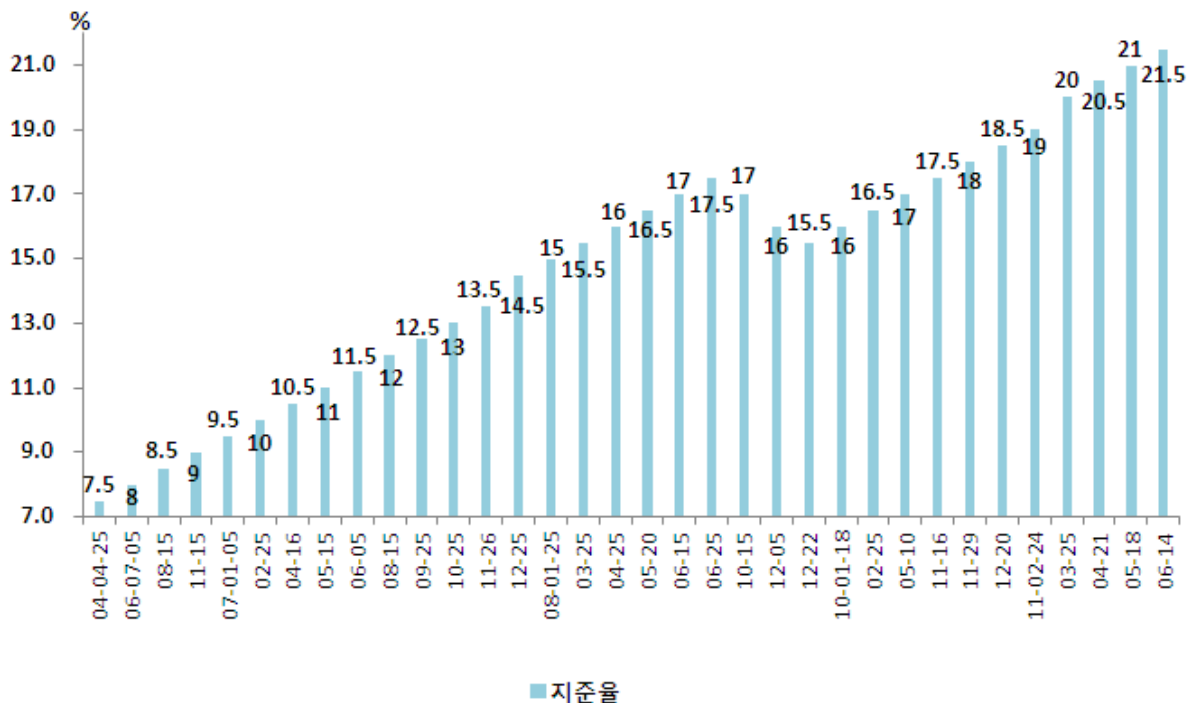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중국통계국; 보험연구원

■ 9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중국 통화정책의 완화 가능성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

- 중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년동월대비 6.1% 상승한 가운데, 동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.5%로 정점에 달한 후 8월 6.2%에 이어 하락세를 나타냄.
-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돼지고기, 야채 등 식품가격의 상승세 둔화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, 이러한 하락세로 올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%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.
- 일각에선 물가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,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체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현행 긴축적 통화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봄.
  - 중국인민은행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3월 이후 20%를 상회하는 기준율을 유지하고 있음.

〈그림 2〉 중국 기준율 변화 추이(2004년 4월~현재)



자료: 중국인민은행.

(중신망 10/08, 국가통계국 10/04, WSJ 10/04 등)